

The screenshot shows the Nicetea website with a dark background. At the top left is the logo 'Nicetea' with the tagline 'tea shopping for you'. The top right features a search bar with placeholder text 'Search for products or tea names'. Below the header, there's a banner with the text '한국인 향토차와 함께 즐기고 싶으니? 주문하세요! 가격비교! 고객이소리' (Want to enjoy traditional Korean tea with us? Order now! Price comparison! Customer reviews!).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sections for 'New Product' (New Product), 'Tea Type' (Tea Type), 'Herb Tea' (Herb Tea), and 'Customer Review' (Customer Review). There are also links for 'Tea Time Magazine' (Tea Time Magazine) and 'Gift Proposal' (Gift Proposal).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footer with links to 'Customer Support' (Customer Support),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and 'Terms of Use' (Terms of Use).

나이스티

녹차, 허브차 등 각종 차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원하는 차 종류를 선택하면 모니터에 넘칠 정도로 많은 가지수가 나타난다.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사진과 함께 원산지, 유통 기간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포장 재질, 맛, 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 편리한 구매를 돋는다.

E|주

마들렌 등 소형 과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는 바로 흥차. 흥자 전문 판매 사이트 '티조'에는 '포트넘 & 메이슨', '딜마', '마테' 등 10개가 넘는 세계 유명 상표의 갖가지 제품들이 즐비하다. 덤으로 유서깊은 브랜드의 로고와 포장 문양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윽한 차와 커피의 향이 느껴지는 곳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드는 겨울, 케이크와 함께 따뜻한 한잔의 차를 곁들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최근 테이크 아웃(Take-Out)이나 카페 형식으로 다양한 음료를 구비하는 제과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커피와 차 등에 대한 지식도 쌓아 제품 팔 필요없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자. 글·허윤정 기자

티뮤지엄

맛있는 차를 끓이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 지식이 필수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작은 규모의 카페지만 사이버 공간의 ‘티뮤지엄’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차에 대한 기초 상식을 쌓을 수 있어 이를 그대로 ‘사이버 박물관’에 온 둋한 느낌을 준다.

커피미소

블루마운틴, 자바, 퀼리만자로… 한번쯤은 들어본 커피 종류가 모여 있는 인터넷 쇼핑몰. 완제품 커피는 물론 원산지별 볶은 원두도 살 수 있다. '커피마소' 만의 블렌드 원두(적절한 맛의 조화를 위해 여러 종류의 원두를 석은 것)도 판매한다.